

광주일보로 NIE 일기 30권 넘게 쓴 광주 조봉초교 송상혁군

# “신문은 최고의 글쓰기 선생님”



송상혁군이 어머니 정미주씨와 함께 광주일보를 토대로 써온 일기를 보여 얘기를 나누고 있다. /고경석기자 ksgo@kwangju.co.kr

큼지막한 광주비엔날레 개막식 장면 사진 옆에 이런 글이 있다. '2년에 한 번 열리는 비엔날레지만 경제가 어려워 바깥 앞의 촛불이 돼버렸다. 하지만 3주 전략이 깔리면 좋겠다. 3주 (NO 삼국, NO 주제, NO 부대행사)전략이 과연 비엔날레에 성공의 레드카펫을 펼쳐줄 것인가'

## 직접 주제 정하고 스크랩

미술 잡지의 한 페이지가 아니다. 광주 조봉초등학교 6학년생인 송상혁(12)군의 일기 내용이다. 이런 식으로 그날 그날의 주요 주제를 신문에서 찾아 해당 기사나 사진을 스크랩한 뒤 자신의 생각을 적어놓은 일기가 무려 30권을 넘는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해오고 있다.

3학년 때부터는 광주일보에서만 '글감'을 찾고 있다. 광주일보를 교재로 스스로 'NIE'(Newspaper In Education·신문활용수업)를 진행한 셈이다. 지난 2005년 겨울 광주지역에 많은 눈이 내렸을 때의 일기에는 폭설 관련 기사와 사진이 잇따라 실려 있었다. 눈에 내려앉은 비닐하우스 사진, 눈의 무게를 설명한 박스 기사,

염화칼슘을 왜 뿌리는지 설명하는 기사 등을 일기장에 붙인 뒤 자신의 생각을 적었다.

한 때 의사가 장래희망이었지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 꽂혀, 외교부 장관을 꿈꾸고 있는 송군은 "처음엔 일기가 풀려준 기사에 맞춰 일기장을 채우는 것이 막막했는데 지금은 내가 직접 주제를 정하고 스크랩도 한다"고 말했다.

송군의 어머니 정미주(43)씨는 "상학이가 유지된 다닐 때 사용하는 어휘가 낱다르다고 느껴 신문을 이용해 일기를 쓰도록 해보자는 생각을 했다"며 "눈이 내리는 것을 보고 '하늘나라에서 하얀 솜이 터진 모양'이라고 하는 식이었다"고 말했다.

## 어휘력 뛰어나고 생각 남달라

초등학생들이 흔히 쓰는 '나는 오늘...'로 시작하는 일기가 송군에게는 없다. 어머니에게 꾸중을 심하게 들은 뒤에는 일기를 반성문 형식으로 쓴다. 시(詩)나 편지글은 송군의 일기에 자주 등장하는 단골메뉴다.

"안녕, 덤블링 / 덤블링아 너와 친구하면 / 키가 커지고 / 썩어갈것은 기분이 들어..." 송군이 친구들과 덤블링

놀이를 한 날 쓴 일기로, '덤블링에게'라는 제목의 시다. 삼국지를 읽은 날에는 삼국지의 주인공 유비에게 편지를 쓰는 형식을 취한다.

## 출판사 제안에 책 출간기로

송군은 지난달 '사랑의 일기 재단'이 주관하는 '2008 사랑의 일기 큰잔치'에서 초등부 대상을 차지해 환경부장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광주일보 주최 호남예술제에서는 수년째 시, 운문, 논술 부문 금상 등을 받았다. 송군의 일기는 한 출판사의 제안으로 곧 책으로도 출간될 예정이다.

송군의 글 실력은 독서에서 나온다. 송군이 요즘 재미있게 읽고 있는 책은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 허먼 멜빌의 '모비딕'이나 제롬 셀린저의 '호밀밭의 파수꾼' 등 주로 서양 고전문학이 좋아하는 책 목록 상위에 있다.

송군은 "쓸 때는 모르겠는데 쓰고 나서 다시 글을 읽어보면 내 글에 감격하기도 하고, 반성하기도 한다"며 "문학작품에서는 어휘를, 신문에서는 상식을 얻을 수 있어 즐겁다"고 말했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 나원침 (7642) 김중두



다 좋은 건국·산업지대 KCC

(주) 금복시스템

개인주택, 아파트 발코니  
신규사시 제작 및 상담관행

▶ 사물번호 : 02) 3445-0943  
▶ 사무공간 : 06) 337-0571

## “촛불 진압 인권 침해 결론 정치적 고려 전혀 없었다”

### 광주 온안경환 인권위장

“경찰의 촛불집회 진압을 인권 침해로 최종 결론을 내린 것은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었다. 여러 인권위원이 공통으로 내린 결론인 만큼 경찰도 이를 수용해야 한다.”



인권위의 최종 결정이 옳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또 인권위에 대한 여

지난달 31일 광주시와의 인권 교류 양해각서(MOU) 체결을 위해 광주를 찾은 안경환(60·사진)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위원장은 광주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최근 촛불집회와 관련한 인권위의 결정에 법무부와 경찰이 '수용불가'라며 정면 반박한데 대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달 27일 '촛불 집회 진압' 최종 심의결과 발표를 통해 '촛불시위의 불법 여부를 떠나 경찰 진압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다'면서 어청수 경찰청장 및 시위진압 지휘관에 대한 주의 및 징계 권고를 내렸다.

안 위원장은 "인권위 기본 역할이 정부에 대한 감시 및 견제이므로 어떤 의미에서 정부와 충돌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인권위 고유업무는 했을 뿐이며, 인권위원들의 결정은 명확했고 그 방향 또한 올바른 것"이었다면서

당과 국가기관의 잘못된 선입견이 인권신장에 저해요인 될 수 있음을 역설했다. 그는 "현 정부에 서는 인권위가 김대중 정부 때 설치돼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코드 기관이라는 정서가 깔려 있는 것 같다"며 "하지만 인권위 설치의 세계적 추세였고, 유엔(UN)의 권고로 당시 인권위 설치국가가 120개국으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지난 2년 동안 광주를 8차례 방문했다는 안 위원장은 "광주시와의 인권교류는 광주시가 '인권'을 시정의 중요요소로 삼겠다는 뜻으로 민주·인권·평화도시로서 영장실질심사를 거부하기로 함에 따라 출석하지 않았다.

민중당이 전남 검찰이 김 최고위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고 당 차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거부하기로 함에 따라 김 최고위원은 이날 결국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연습스



최고품질 사과 주렁주렁 육과 시식회 등을 가졌다.

지난달 31일 장성군 삼서면 유평리 사과 탐포루트 단지에서 열린 현장 평가회 참가자들이 최고품질 사과를 살펴보고 있다. 평가회에는 농업진흥청 관계자와 전국 사과재배 농민 등 200여 명이 참가해 탐포루트 사과에 대한 관리기술 교

/위직기자 jrwi@kwangju.co.kr

## 김민석 최고위원 영장심사 불출석

정치자범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9일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이 같은 달 31일 오전 10시30분으로 예정됐던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민중당이 전남 검찰이 김 최고위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고 당 차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거부하기로 함에 따라 김 최고위원은 이날 결국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연습스

## 보성 앞바다 '어부 살해 사건' 인근서

# 남녀 여행객 사흘째 실종

### 실족·범죄 가능성 수사

보성 앞바다에 놀러간 20대 남녀 2명이 사흘째 연락이 두절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달 31일 보성경찰에 따르면 같은 달 28일 오후 7시경 보성군 회천면 울포 해수욕장 인근 민박집에 투숙했던 박모(27·광주시 북구)·박모(여·27·경기도 성남시)씨 등 2명의 행방이 사흘째 묘연하다.

민박집 주인은 경찰조사에서 "박씨 등이 투숙한 다음날 오후 5시경 이들이 묵었던 방을 정리하려고 갔더니 여성용 손가방과 차 열쇠가 방안에 그대로 있었다"며 "잔뜩 잠을 자는

데, 돌아오지 않은 것이 이상해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전북지역 모 대학교 동기인 박씨 등은 바람을 피기 위해 지난달 28일 보성 울포 해수욕장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날 민박집에 짐을 둔 뒤 인근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했으며, 밤 11시경 울포 해수욕장 인근 선착장(폭 3m, 길이 400m, 높이 3m) 난간에서 술을 마신 모습이 마지막으로 주민들이 사흘째 묘연하다.

이곳은 지난해 8월과 9월 남녀 여행객 4명이 70대 어부에 의해 살해된 곳과 직선거리로 1km가량 떨어진 곳이다.

경찰은 박씨 등이 타고온 SM 5 승

용차가 그대로 주차된 점과 타살흔적 등이 없는 점으로 미루어 선착장 난간에서 술을 마시다 실족사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사를 하고 있다. 또 범죄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직원 등 40명과 민간인 60여 명을 동원해 실종자를 찾는데 수색력을 모으고 있으며, 해경도 경비정 3척과 잠수부를 동원, 인근 해역에서 이틀째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한편, 박씨는 최근 검찰 9급 시험에 합격한 예비 공무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행한 박씨는 여경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종형기자 golee@

/보성=선정기자 sun@

## “안재환 타살 증거 있다며 40대 남자가 거액 요구”

### 안씨 누나 고소장 제출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31일 40대 남성이 탤런트 안재환씨의 사망원인 이 타살이라는 증거를 건넬때마다 유족들에게 거액을 요구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됨에 따라 사실확인이 나섰다.

안씨 누나 미선씨는 지난달 29일 제출한 고소장에서 김모(41)씨가 같은 달 16일 오후 5시30분경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안재환씨의 죽기 이를 전 모습을 담은 휴대전화기 동영상과 가족에게 보낸 편지 7장, 대충 관련 서류를 보내는 대가로 1천500만원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김씨는 당시 전화 통화에서 "안재환의 죽음을 알고 있다. 죽기 이를 전까지 함께 있었고 자살이 아니라 타살이다. 안씨를 죽인 이들이 피해 도피하고 있는데 미항을 해야 하니 배값 1천만원과 일본 도파자금 500만원을 송금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미선씨는 전화통화 다음 날인 17일 광주경찰서에서 김씨를 만나 증거물이 들어있다는 광주 버스터미널 사물함 키를 받았으나 확인 결과 아무 것도 없었다는 것이다. /연습스

## 장기 출장 빈 이웃집 전기 물래 싸

○출장으로 장기간 집을 비운 이웃집의 전기를 물래 쓴 30대 남성이 경찰서행.

○광주서부경찰은 지난달 31일 이웃집의 전기선을 자신의 집으로 연결해 3개월 동안 무단 사용한 정모(33)씨를 절도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11월 11일 밤 8시경 광주시 서구 A원룸에 사는 강모(37)씨의 집 외부에 설치된 전기단자함을 열고 전기선을 꺼내 자신의 집 단자함에 연결, 3개월 동안 55만원 상당의 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

○피해자 강씨는 출장에서 돌아온 뒤 자신의 집 전기요금에 과다 청구된 것을 발견하고 한국전력에 민원을 제기했으며, 한전이 조사한 결과 전기를 무단 사용한 흔적 등을 발견돼 정씨를 경찰에 신고.

/이종형 기자 golee@kwangju.co.kr

## 광주·전남 쌀쌀

### 일교차 커 건강 관리 주의

주말과 휴일 광주·전남지역은 구름이 많이 낀 다소 쌀쌀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주말인 1일 광주·전남지역은 고기압의 영향에 들면서 구름이 많이 끼겠으며 수천 등 내륙지방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겠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1일 아침 최저기온은 5~12도, 낮 최고기온은 18~20도의 분포를 보일 것이다. 이는 평년기온보다 1~2도기량 낮은 수치다. 휴일인 2일에도 특별한 비 소식 없이 구름이 많이 낀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아침 최저기온은 7~13도, 낮 최고기온은 18~20도의 분포를 보여 아침·저녁으로는 제법 쌀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광주지방기상청 관계자는 "당분간 전형적인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건조한 가운데 일교차가 커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종형 기자 golee@

## 구름 잔뜩

오전에는 대체로 맑겠으나 오후 늦게부터 구름이 많아지겠다.

## 11월 1일

(음 10월 4일) 날씨

◇전국날씨

광주	맑은 뒤 흐림	8~19℃
목포	맑은 뒤 흐림	12~18℃
여수	맑은 뒤 흐림	11~19℃
완주	맑은 뒤 흐림	10~19℃
구례	맑은 뒤 흐림	10~19℃
해남	맑은 뒤 흐림	6~20℃
고흥	맑은 뒤 흐림	10~19℃
홍성	맑은 뒤 흐림	6~19℃
순천	맑은 뒤 흐림	8~20℃
영광	맑은 뒤 흐림	8~19℃
진안	맑은 뒤 흐림	7~19℃
전진	맑은 뒤 흐림	9~19℃
진천	맑은 뒤 흐림	6~18℃
남원	맑은 뒤 흐림	4~18℃
홍산도	구름 조금	14~17℃

서해남부  
안바다=북서~서풍 파고 0.5~1.0m  
남바다=서~서풍 파고 0.5~1.0m  
남해서부  
안바다=북서~북서풍 파고 0.5~1.0m  
남바다=북서~북서풍 파고 0.5~1.0m  
목포 밀물 < 03:18 썰물 < 08:36  
16:07 밀물 < 21:21  
여수 밀물 < 10:41 썰물 < 03:56  
22:29 밀물 < 16:46

▲해돋이 06:54 ▲해질 17:38

▲달출 09:57 ▲달입 19:29

기상인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씨	2(일)	3(월)	4(화)	5(수)	6(목)	7(금)
날씨						
최저/최고	10/19	10/19	9/19	10/21	12/18	10/17